# 인문학 공부하러 광주시립미술관으로

## 음악·음식·영화 '그림 속 삶 이야기' 무료 아카데미 강의
## 하정웅 미술관 '어떻게 살 것인가' 강좌 9월까지 목요일마다

최진석

이정모

손철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진행하는 미술·인문 강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런치 콘서트' 등 지난달부터 이미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대표 강좌인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가 4월부터 강의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미술관 본관과 서구 하정웅 미술관 두 곳에서 운영되며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2기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는 '그림 속 삶 이야기'를 주제로 모두 8개 강좌가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그림을 접하는 다양한 방법이 눈길을 끈다. 음악, 음식, 영화, 광고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그림을 새롭게 만나보는 시간이다.

오는 23일 오후 3시 열리는 첫 강의는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의 저자 손철주 미술평론가가 '음악이 있는 옛 그림'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태호 서울산수연구소 소장(5월 14일)은 '조선시대 초상화로 본 한국인의 얼굴'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며 한창호 영화평론가(6월18일)는 '영화, 그림 속을 걷고 싶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광고로 읽는 미술사'(정장진 고려대 교수·8월13일),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그림'(주영하·한국중앙학연구원 장서각 관장·7월16일), '예술가와 나이'(미술사가 이연식·11월13일) 등 다양한 주제로 강좌가 펼쳐진다.

사라져 가는 구멍가게 작품으로 유명한 서양화가 이미경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한다. 이 작가는 오는 9월17일 '동전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을 주제로 강연한다.

10월에는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전시장과 국립현대 미술관 청주관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달 시작돼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열리는 '런치토크' 강좌도 '전시를 요리하다'를 주제로 계속된다.

오는 9월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에서 강연하는 이미경 작가의 '홍매화 가게'.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와 연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낮 12시 시작하는 강연에 참여하면 간단한 점심도 제공한다.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전(6월30일까지)의 참여작가인 '제시 이야기'의 박건웅 만화가가 오는 24일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하며 5월 29일에는 현대미술관 소장품전인 '남도미술 뿌리'(6월30일)전과 연계해 장석원 전남대 명예교수의 강의가 펼쳐진다.

그밖에 지난해 고흐, 모네, 벨라스케스를 소개해 인기를 모았던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의 강의는 이중섭·샤갈·미켈란젤로 등을 주제로 5월부터 4차례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613-7132.

◇하정웅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 인문학 강좌(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3시)도 강의를 시작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강좌는 9월까지 매달 셋째주 목요일 오후 3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18일 열리는 첫 강의는 최진석 전 서강대 교수가 맡는다. 현재 광주에서 '장자' 집중강의를 진행중인 최 교수는 '불안을 자초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5월 16일에는 MBC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를 제작했던 최상일 전 MBC PD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 등 과학 관련 서적을 펴낸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의 미래'(6월13일)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그밖에 유창종 와당박물관장의 '와당으로 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철학'(7월18일), 이태호 서울산수연구소장의 '박수근과 이중섭, 자아와 타자의 이미지'(8월22일), 시인 김용택의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9월19일) 등의 강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는 조대영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가 강사로 참여해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오후 3시~6시) 진행한다. 오는 24일에는 자코메티의 이야기를 다룬 '파이널 포트레이트'가 상영되며 이후 '에곤 쉴레:욕망이 그린 그림'(5월29일), '리틀 애쉬:달리가 사랑한 사람'(6월26일), '미드나잇 인 파리'(7월31일), '콜럼버스'(8월28일) 등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613-539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Recollection'

# 판화 작가 박구환의 유화 감성

## 김냇과 30일까지 초대전

독특한 질감과 화려한 색감이 특징인 박구환 작가의 목판화 작품에 익숙한 이라면 이번 전시작을 보고,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것같다. 나뭇가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송이들을 붓으로 일일이 찍어 바른 작품에선 판화 고유의 느낌과 더불어 유화적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이다.

박구환 작가가 오는 30일까지 광주 복합문화공간 김냇과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회상(Recollecti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7년여 전부터 작업해온, 판화를 바탕으로 한 유화 작품 23점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유화 작품을 한 두점 선보인 적은 있지만 전시작 전체를 유화로 꾸민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초창기 추상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줄곧 남도의 자연풍광을 담은 목판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작들은 그만이 할 수 있는 판화 작업의 장점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회화적 기법까지 함께 담아 개성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울퉁불퉁한 곡선 등 목판화로 찍어낼 때 발생하는 우연성들은 붓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흔적들이고, 그 자취들과 유화 작업이 어우러지며 목판화의 투박미와 더불어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냈다.

이번에 전시된 그의 작품들은 무엇보다 평화롭고 위안을 준다. 힘들었던 시절, 자신에게 큰 위안을 줬던 바닷가 풍경이라든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들의 행복한 모습이라든지 그림 속에서 만나는 풍경은 다채로운 파스텔톤 색채와 어우러져 따스함이 넘친다.

지난 2009년 담양군 수북면 두정리 시골마을로 작업실을 옮긴 그에게 늘상 만나는 이웃들과 마을 풍경은 이야기를 건넸고, 고스란히 작품의 소재가 됐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함석 양곡창고, 낮게 엎드린 집 등이 모두 화폭에 살아났고 리어커를 끌고 지나는 노인, 아이 업은 엄마, 밭일하는 이 등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장면들을 포착했다.

눈에 띄는 작품은 지난해부터 그리기 시작한 은행나무다. 단골 추어탕집 앞의 커다란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늘 화폭에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눈부신 노란빛이 인상적인 작품이 완성됐다. 유일하게 걸린 정물화는 톤 다운된 색감과 반추상 느낌의 작품으로 색다른 느낌을 준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1991년 일본에서 판화를 접하면서 판화가로 전향, 뉴욕과 동경을 비롯해 후쿠오카, 대만 카오슝, 서울, 부산 등에서 39회 개인전을 열었고, 그룹전과 초대전에 500여회 이상 참여했다. 문의 062-229-335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향 '교향악축제 프리뷰;전람회의 그림'

## 11일 문예회관…유영욱 피아노 협연

피아니스트 유영욱

국내 최대 클래식축제인 '교향악축제'에 참가하는 광주시립교향악단(시향)이 광주시민에 먼저 무대를 선보인다.

시향은 342번째 정기연주회 '2019 교향악축제 프리뷰;전람회의 그림'을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연다.

김홍재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음악회는 근대 인상파음악의 선구자로 불리는 러시아 작곡가 무소르그스키(1839~1881)의 작품을 내걸었다. 먼저 그의 교향시 '민둥산에서의 하룻밤'으로 문을 연다.

이어 시향은 '낭만주의 협주곡'의 새 전기를 마련한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마단조 작품 11'을 피아니스트 유영욱(43·연세대 교수)과 협연한다.

마지막으로 무소르그스키의 대표작 '전람회의 그림'을 라벨의 편곡으로 만난다. 이 작품은 김홍재 지휘자의 대표 레퍼토리로 알려져있다. 원래 피아노 독주곡인 이 곡은 무소르그스키가 친구 하르트만의 유작 전시회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했다.

이날 공연 40분 전부터는 작곡가 강보란이 해설자로 나서 '클래식 토크'를 진행한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교향악축제는 21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광주시향은 같은 레퍼토리를 오는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다시 올린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백희준 기자 bhj@

# '제1회 여·순사건 해원 음악제' 14일 낙안읍성

'제1회 여·순사건 해원 음악제'가 오는 14일 오후 3시 낙안읍성 객사 무대에서 열린다.

음악제는 여순사건 영상기록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낙안면, 낙안여성농민회, 낙안군문화보존회 등이 후원한다. 이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여순사건의 슬픈 역사를 노래로 승화할 예정이다. '낙안읍성가'(이영애), '부용산'(김성춘), '저 하늘에서라도'(김재은), '여수야화'(김수련), '산동애가'(문선영), '잠들지 않은 남도'(조연), '살풀이춤'(공정애), '여수아가씨'(김정민) 등 여순사건 해원음악들로 무대를 채운다. 이외 '여순사건 바로알기' 사진전이 부대행사로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

년 회원 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2/221-4101,3

연회비

| 구 분 | 연회비(VAT포함) | 비 고 |
|---|---|---|
| 개인(1년) | ₩ 2,800,000 | 본인 1인 |
| 증정품 | • 객실 무료이용권 2매<br>• 레스토랑 이용권 1매<br>• 휘트니스 이용권 4매 | |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